

시론

영원한 타임 트래블러(시간 여행자)



박 남 기
광주교대 교수

국제학술대회 참가자 미군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연착으로 연결편을 놓치는 바람에 항공사가 제공한 호텔 셔틀버스에 올랐다. 미니애폴리스의 산하가 처음임에도 천 번 이상을 왕복한 광주-서울 간 고속도로 인양 전혀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래서 여행은 짧아서 하라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며 호텔에 도착했다. 짐을 풀고 나니 밤 8시가 넘어 서둘러 식사를 하러 나갔다. 근처 식당이 모두 문을 닫았기에 지나가는 젊은 친구에게 물어 조금 떨어진 햄버거집 정보를 얻었다. 덕분에 자유로운 공기를 만끽하며 어두워가는 미국의 낮선 길 위를 걸을 수 있었다. 20여분을 걸어 겨우 찾은 햄버거집에 들어서려는데 문이 잠겨있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다른 곳을 찾을 요량으로 이동하는데, 어떤 사람이 드라이브 쓰루에서 햄버거를 주문하고 있었다. 그 차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자기한테서 주문하라는 스피커 소리가 들렸다. 주문 후 픽업 창구로 갔더니 원하면 매장 안으로 들어와서 먹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햄버거 세트를 받아드니 책임자처럼 보이는 직원이 나와 농담을 건넸다. 주문 창구 근처에 웬 틴에이저(십대)가 어슬렁거리고 있어서, 걱정돼 담은 문을 특별히 열어주었다. 나도 웃으며 한마디 건넸다. 실은 내가 미래에서 온 타임 트래블러, 시간 여행자라고. 작은 체구에 캐주얼한 복장을 한 동양인이 어둠에 깔린 감시카메라 안에서는 정말 10대로 보였을까? 집사람에게 당신은 뒤프로디테(뒤에서 보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나는 뒷모대엘(뒷 모습 보면 대학생 모델)이라며 서로 웃곤 했는데, 나에게 그러한 농담을 하는 사람을 먼 미국 땅에서 만나 잠시 유쾌하게 웃었다. 다음날 먼동이 터오르는 신새벽에 공항으로 가는 셔틀에 올랐다. 열차리에 앉은 승객과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피아노 강사였는데 지금은 군에서 코딩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리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피아노를 가르칠 때나 코딩을 할 때나 종이 앉아서 자판 두드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웃었다.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집수리를 하러 온 사람이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다던 기억이 난다. 예술 분야 전공자들은 늘 과잉공급되고 있었던 모양이다. 우리나라 연예인 전체 소득의 85% 가량을 상위 10%가 가져간다고 한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녀가 연예인이 되겠다는 것은 90% 확률로 생보자가 되겠다는 것이라는 농담이 생겨났

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길 위에서 만난 피아니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했다. 나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예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의 벽지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나처럼 어릴 적 사소한 장 없을 정도의 가난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눈앞의 현실을 꿈으로 바꾸며 살아가야 했던 고통의 시절이 지나고, 지금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꿈결의 끝은 여전히 어둠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진로 지도의 핵심은 꿈을 쫓아 노력하도록 이끄는 것만이 아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꿈꾸는 일이 생계유지에 필요한 직업이 될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릴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나이 먹은 여행자의 길 위에도 종종 새로운 만남, 예상치 못한 즐거움과 깨달음이 기다리고 있다. 나이 들어 여행을 하면 가슴이 아니라 다리만 떨린다던데, 운 좋으면 아직은 가슴 뛰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기억에서 사라진 아득한 과거를 만나기도 하고, 내가 떠나고 없을 먼 미래를 만나기도 한다. 무지개를 잡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한, 우리는 낯선 길 위를 여행하는 영원한 시간 여행자임을 이변 출장길 위에서 다시 깨달았다.

社說

수백억 시비 추가 백운광장 지하차도 행정불신 자초

광주시가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백운광장 지하차도 사업비를 뒤늦게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개통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당초 588억원(국비 136억5천만원, 시비 451억5천만원)에 더해 시비로 350억원을 총담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정이 생겼다.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체중 심화 우려에 따라 2021년 양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재등급이 상향된 내용을 간과했던 것이다. 3등급에서 2등급이 되면서 기체실, 관리소, 환기 팬 차우, 비상 탈출-대피로, 폭우 대비 차단 시설 등을 추가해야 하고, 중앙분리대 설치까지 그 비용 만큼 광주시가 떠안아야 한다. 수년간 온갖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을 볼 낫짜이 있는 지 묻게 된다. 백운광장 지하차도는 강기정 시장이 2022년 취임과 동시에 해결을 약속한 '5+1' 현안 중 하나로 사업이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시민들은 주시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으로 계획대로 내년 6월 개통한다고 하지만 가뜰이나 SOC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다른 사업

으로 불똥이 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광주시의 행정력 낭비에 따른 불신이 커졌다. 현재 추가 투입으로 인한 재정 누수는 또 어쩔텐가. 당초 공사비를 책정할 때 시간에 쫓겨 방재등급별 시설물 설치 등을 놓쳤던 것 같다고 변명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책임 소재를 가리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당초 2015년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비와 지하공간, 교통량 등을 감안, 조선대에서 농성광장 방향 편도 2차로 추진을 결정한 것부터 논란이 일었다. 인근 주민들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교감회를 통해 양 방향으로 변경을 건의했고, 광주시는 자문회의를 열어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공사가 막바지로 향하는 시점에서 시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곤혹스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지자체의 행정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것은 물론 주민들 실생활에도 직결된 때문이다. 보고받은 강 시장이 격노하고도 남는다. 공개적 사과와 함께 재발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여순사건이 '반란'이라는 감정 교과서 철회돼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 레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기술하면서 반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2022년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실제적 진상 규명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로 매우 유감이다. 윤석열 정부는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희생자 유족들은 물론 지역민도 분노하고 있다. 차마 언급하는 것조차 불쾌한 것이다. A출판사는 '반란'과 '반란 폭동' 단어를, B출판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기했다. C출판사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와 함께 사진 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D출판사는 '반군', E출판사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라고 지칭했다. 특별법에서도 여수에서 주도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과 정면 배치된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하겠다. 역사를 왜곡하고 이념 대결을 부추기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19명이 함께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10월 5일 마감되는 조사 기한 연장 필요성이 더 커졌지만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를 낳는다. 근현대사의 큰 비극이다. 국가 폭력의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역사적 과업 수행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특별법에도 없는 '반란'이란 단어가 교과서에 버젓이 실렸다. 당장에 해당 교과서의 검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곽 희 호
목포청연한방병원장

유난히 더운 2024년의 여름이다. 열대야가 최장기간 지속됐고, 장마철 습도가 높아져 고온다습한 날씨가 더 심해졌다. 덥고 습한 환경은 미생물이나 균이 번식하기 좋은 상태인데 이 때 음식 관리를 잘 못하면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 있다. 식중독(食中毒·Food poisoning)은 음식을 섭취해 미생물 감염 또는 독소 중독으로 발생한 소화기계 질병이다. 식중독은 복통 같은 경미한 증상부터 패혈증처럼 중증까지 발전될 수 있어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 식중독의 대표적인 원인균은 살모넬라균, 장염 비브리오균, 황색 포도상구균 등이 있다. 살모넬라균과 장염 비브리오균은 세균성 감염형 식중독에 해당하며 음식물과 함께 섭취한 세균이 자라나야하므로 발생시간이 꽤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살모넬라균은 전체 식중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여름철에 가장 흔한 식중독 원인균이며 오염된 육류, 달

여름철 식중독 관리

걀, 유제품 등에서 잘 번식한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6-9월에 많이 발생하며 저온, 냉동,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음식을 가열해야 세균을 사멸시킬 수 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에 사는 균으로 여름철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증식을 시작한다. 어패류에 잘 번식하며 살모넬라균처럼 가열해야 세균의 증식을 저지할 수 있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세균성 독소형 식중독으로 세균이 생성한 독소를 섭취한 상태라 발생시간이 짧은 편이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단백질, 수분이 많이 함유된 육류나 유제품에서 잘 번식한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열에 매우 강해 음식을 끓이거나 익혀도 독소가 잘 파괴되지 않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특히 위험하다. 식중독의 증상은 오한, 발열, 소화불량,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소화기계 장애가 나타나는데 병의 양상이 다양한 편이다. 짧게는 2-3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증상이 지속된다. 식중독 증상이 심각한데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혈류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면역력이 약한 소아, 노인, 임산부, 만성 질환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식중독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딱 세가지지만 지키면 되는데 손 씻기, 익

혀먹기, 음식물관리다. 항상 움직이는 두 손에도 수많은 세균들이 도사리고 있다. 음식을 다루기 전에 먼저 손을 씻으며 취사할 때에도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익히지 않은 날 것 상태의 음식물을 피하고 반드시 가열해 익혀먹는 것이 중요하다.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은 각각 섭씨 75도, 80도에서 사멸하기 때문에 물이 끓는 섭씨 100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섭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잘 상하므로 냉장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변질 의심이 있는 음식은 가열을 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 아깝다는 생각을 말고 버리는 것이 좋다. 한방양방 협진진료를 시범사업 중인 한방병원에서는 식중독 치료에 침, 뜸, 한약, 주사 치료를 사용하고 있다. 소화기 통증 억제와 내장기능 정상화에는 침구치료가 효과적이다. 구토와 설사가 멎지 않을 때에는 몸안의 독소와 열독을 제거해주는 청열해독약인 황련, 백두옹등의 한약재로 한약을 조제 및 처방한다. 또한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 체내의 수분을 직접 공급해주는 주사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양식을 많이 찾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보양식도 안전하게 섭취해 식중독을 예방하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10대 파고든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대책 필요



정택민

최근 '딥페이크'(AI로 만든 정교한 가짜 영상)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모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는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로, 이를 이용해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타인의 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허위 영상물이 바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다.

문제는 이 범죄에 10대 청소년, 즉 중·고교생 피해자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10대 사이에서는 손 쉽게 합성 영상을 만들어주는 앱(APP)이 등장해 범죄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 "신기하고 재밌어서", "장난으로"라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볍게 접근하거나 '놀이'처럼 여겨져 범죄 경각심 또한 낮다.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에서 수만명이 참여한 '지능(지인능력), 겹치인(겹치는 지인)'이라는 단체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해 유포자의 신원 추적이 어렵고 성착취물은 빠르게 유포돼 피해는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SNS 계정 비공개전환 ▲교

북·학교·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게시글 삭제 ▲피해 증거 확보(사진 저장)가 필요하다. 범죄 피해를 입을 시 경찰청(112) 및 방송통신심의위(1377)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의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가공·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대상이 청소년(19세 미만)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제작뿐 아니라 소지 및 시청도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SPO팀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27만건 삭제 못했...2년새 80% 증가

최근 4년 반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에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해 불법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건수가 9만건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약 29%인 27만건이 삭제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디성센터가 접수한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은 93만8천61건이다. 이 가운데 삭제하지 못한 건수는 26만9천917건으로, 전체 요청 건수의 28.8%에 해당한다.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16만6천여건, 2022년 20만6천여건, 2023년 24만3천여건으로 매년 최소 3만건 이상씩 늘었다. 올해에도 6월까지 작년 한 해의 68% 수준인 16만5천여건의 요청이 접수됐다. 미삭제 건수는 2021년 4만2천여건에서 2023년 7만5천여건으로 증가하며, 2년 만에 79.7% 불어났다. 올해 1-6월엔 전년의 56%에 달하는 4만2천여건을 지우지 못했다. 미삭제 비율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24시간 상담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성센터의 열악한 인력 현황이 꼽힌다.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 기업에 이를 지우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 제·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